

## 옵기

### 세션 4: 장르와 구조 그리고 지혜의 본질

####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옵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장르와 구조, 그리고 지혜의 본질입니다.

#### 소개 [00:24-00:57]

이제 옵기의 장르와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진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입니까 아니면 허구입니까? 나는 그것이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테이블에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옵션입니다.

#### 장르의 중요성 [00:57-4:16]

그래서 우리는 책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장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르가 까다로운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르는 우리가 책을 읽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미스터리를 읽고 있다면 전기를 읽을 때와 다르게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설을 읽는다면 그것은 연재 만화를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장르를 이해하면 사물을 다르게 읽습니다.

그러나 장르가 무엇인지 또는 장르의 식별은 유사한 문학 공동체에서 문학 작품을 위치시킵니다. 그것은 그것과 같은 것을 식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읽기 전략을 제공합니다. 즉, 장르 식별이 의미가 있으려면 세트에 다른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옅과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혜문학으로 충분히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것은 광범위한 범주이지만 지혜 문학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담, 속담은 지혜문학의 한 장르이다. 그것은 대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혜의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넓은 범주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기대감을 주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 자체로 전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옅기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넓은 범위의 지혜 외에는 문학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 말은, 우리는 대화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있고 옅은 그 안에 약간의 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 찬송가인 문학 작품이 있고 옅에게는 지혜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론인 문헌이 있고 옅에게는 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 알 수 있는 장르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의 무고한 고통을 다루는 다른 책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욥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책 안에 수많은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 세계에 유사한 시나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욥기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루다.

### **사고 실험으로서의 욥 [4:16-5:57]**

그것은 지혜 문학이며 읽기 전략에 대한 많은 질문을 통해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혜 문학의 한 형태이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고 실험의 형태입니다. 사고 실험에서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문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도록 신중하게 구성된 시나리오입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유는 실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정 방식으로 결합됩니다. 따라서 비유는 사고 실험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욥이 비유라고 믿지 않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실험에서는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요점은 사고 실험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장치의 현실적인 특성에서 철학적 힘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 **극단적인 추진 [5:57-7:28]**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더 극단적입니다. 욕기에는 모든 것이 극단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한 극단적으로 늘어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책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극단입니다. 만약 욕이 덜 의롭다면, 그는 대부분의 시간에 꽤 좋은 편입니다. "오, 그는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덜 극적이거나 점차적으로 발생했거나 실제로 그렇게 철저하고 포괄적이지 않은 경우 "글쎄, 그는 약간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간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의롭지 않은 행동과 약간의 고통,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니, 아니, 욕기, 모든 것이 극단으로 당겨집니다. 탁자 위에 쉬운 대답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쉬운 대답을 모두 제거하고 철학적 아이디어, 지혜 포인트를 처리해야 합니다.

### **문학적 구성물로서의 욕 [7:28-11:21]**

사건이 진짜인지에 대한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거의 초현실적이지만 충분히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생각해보자. 그것이 사고 실험이라면 적어도 책의 일부는 실제 사건, 문학적 구성이 아니라 문학적 구성이라고 불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동의해 온 책의 일부가 문학적 구성물입니다. 친구들의 연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고상한 언어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사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음, 고대 세계에서 그들은 그랬고, 이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등등, 속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에 거기 있어서 모든 것을 기록할 속기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연설은 문학적 구성물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십니까? 책의 일부를 문학적 구성으로 식별하자마자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의 얼마나 많은 것이 문학적 구성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사건의 기록일 수 있습니까? 어디에 선을 긋습니까? 그리고 책의 일부가 문학적 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문학적 구성은 사고 실험에서 관촬기 때문에 어디에서 선을 긋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욕이 정말 절박한 사건이 그에게 닥친 정말 좋은 사람으로 고대 세계에서 유명해진 실제 과거의 실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지혜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이 유명한 사람을 이용한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러티브의 기본 형식을 취합니다. 아니, 욕의 삶, 한 남자의 의로운 고난을 의미하는 기본 내용과 서사가 실제 과거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닻이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책의 대부분은 사고 실험, 문학적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극단의 사용과 테이블에 가져온 철학적 문제는 모두 요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 **사고 실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11:21-12:53]**

지금, 아마 당신은 그 아이디어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내 다음 단계는 삼키기 더 어려운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책이 대부분 사고 실험, 문학적 구성물이라면 신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이 사람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넣은 영감받은 저자입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열리는 장면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도 문학적 구성인가? 그것도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적어도 그러한 용어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진실은 그

지혜의 가르침, 즉 확인되고 있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책의 진실은 역사성의 차원에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고 실험이라면. 극단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 **욥을 사고 실험으로 보는 것의 이점[12:53-14:40]**

여기에 문학적 구성 사고 실험의 일부로 천국의 장면에 대해 생각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 실험이라면 천국에서 그런 장면이 열리면 어떨까요? 이것이 대화가 이루어진 모양이라면? 그 모든 것이 욥의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자들이 책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는 특정 사항을 어떻게 피하는지 보십니까? 이것은 마귀와 내기를 하는 신의 그림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책에서 얻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이블의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복잡한 문제이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잡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책은 천국 토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14:40-15:47].**

이 책의 가르침은 사건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가르침은 펼쳐지는 문학적 시나리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고 실험이라면 그 시나리오를 배치하는 데 많은 창의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시도 해 봐. 쉬운 대답이 테이블에서 벗어나도록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지 않는 일에 대해 토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에 대한 그분의 책임 또는 그분이 고통에 대해 어떻게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늘의 토론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 **수사학적 전략: 구조와 지혜 찬송가 [15:47-20:20]**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고 실험 아이디어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이 어떻게 가르침을 성취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사적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책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의 구조는 알아보기 매우 쉽습니다. 샌드위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장면과 욥의 경험이 있는 산문 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는 산문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북엔드입니다.

책의 바로 중간에 지혜에 대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대한 찬송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가볍게 읽으면 옘이 말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옘은 2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장은 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8장에서 새로운 화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옘이 똑바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27로 끝나는 부분이 책의 대화 부분입니다. 29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책의 담론 부분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 찬가는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 섹션에서 담화 섹션으로의 전환을 제공합니다. 대화 부분을 보든 담화 부분을 보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옘이 28장에 나타난 것과 같은 종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이나 이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옘의 입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나도 동의하는 대안은 28장의 지혜에 대한 찬가에서 내레이터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를 주신 분, 죄송합니다. 프롤로그와 장면을 설정하고 결론을 이끌어 낸 에필로그가 다시 중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옘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마친 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것은 3장에서 시작하여 27장까지 이어지는 대화 부분입니다. 옘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나면서 연설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소발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빌닷은 매우 짧습니다. 그들은 대화에서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대화는 고대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로 되어 있고, 당신은 그것의 끝에 도달하고 매우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지혜에 대한 찬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그게 다야?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니? 아직 표면을 긁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지혜에 대한 찬가에서 그 책은 정의에 대한 토론처럼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찬가는 책의 중간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에서 담화로 우리를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으로 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 **대화와 담화 [20:20-23:30]**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지혜에 대한 찬가를 가지고 있고, 주요 부분은 대화와 담론입니다. 대화가 우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옵과 그의 친구들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각각 연설을 하고 욥이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대화 부분입니다. 그것은 3장에서 욥의 탄식으로 시작하여 4장에서 엘리바스의 연설로 시작하여 27장을 거쳐 지혜에 대한 찬송과 담화로 이어집니다.

담화는 서로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설을 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29-31장에서 그의 연설을 하고, 엘리후는 32-37장에서 그의 연설을 하고, 그 다음 야훼가 연설을 하고 그것이 담론 부분을 채운다.

그래서 우리는 책의 원시 내용을 많이 포함하는 대화와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는 모든 것을 끝맺습니다. 이제 저는 이 구조가 수사적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조는 사례가 구축되는 방식을 통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 어떤 부분도 책에서 쉽게 생략될 수 있고 여전히 일관성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문학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대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르지만 모두 함께 작동하며 그 중 하나를 빠뜨릴 수 없으며 여전히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을 통해 작업하면서 수사적 전략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 부분이 기여한다고 믿기 때문에 책의 각 부분이 기여하는 바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패치워크 퀘트나 여러 손으로 함께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책으로 모이는 조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문학적 구조라면, 그것이 구성되고 구성되고 지혜 메시지가 있는 사고 실험이고 모든 조각이 그 일부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실제로 책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음유시인들은 재능이 있었고, 이것을 구술로 도 합칠 수 있었다 .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기억해야 할 것도 많지만 고대 세계의 음유시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Homeric 문학은 그 자체로 꽤 길며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수사학적 전략과 저자의 의도 [23:30-26:17]**

우리는 책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식별 가능하고 정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의 수사적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수사적 전략은 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수사학적 전략은 저자의 전략이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두든 서면이든 커뮤니케이터를 위한 일종의 지름길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사학적 전략이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의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이지만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간 커뮤니케이터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를 받으려면 인간 커뮤니케이터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자의 의도라고 부르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저자의 의도 중 일부는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다를 수 있으며 괜찮습니다. 그것은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의 다른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해석자들은 하나님이 인간 전달자, 인간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신 책의 메시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 커뮤니케이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권위를 찾을 곳입니다. 우리는 프리랜서로 일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읽을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 이 책은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책 자체에서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모든 문제를 가진 장르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수사학적 전략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감받은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저자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 전달하신 내용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율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장르와 구조, 그리고 지혜의 본질입니다. [26:17]